



믿는다
더 큰 일꾼
최재관

청와대 비서관(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주시·양평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51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남	1968.12.18.	정당인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현)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5,009	22,319	2,690	고지거부	20,000	육군상병 (복무만료)	장남 : 육군상등병 (복무중)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3,749	없음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00만원 (2007.12.27.)
후보자	2,422	없음	없음	
배우자	134	없음	없음	
모	1,186	없음	없음	
장녀	7	없음	없음	
장남	0	없음	없음	
차남	0	없음	없음	

4. 소명서

전과기록 공무집행방해죄는 2007년 한미 FTA 공청회를 반대하여 단상에서 현수막을 펼쳐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음

저를 바치겠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찾아갈 때
농사 짓겠다며 이곳에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나온 귀농청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실릴 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위해
곳은 일 마다 않고 살아온 25년,
그의 인생이 그의 진심을 증명합니다.
이곳에 삶을 바치겠다는
스물일곱 청년의 마음으로
또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최재관,
한결 같은 사람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 챙겨본 사람 군살림 챙겨본 사람



청와대를 움직이는 40여 명의 비서관, 최재관의 비전이 문재인 정부의 미래 전략이 되었습니다. 최재관이 만들어갈 여주·양평의 변화는 단지 한 지역의 변화가 아니라 친환경 성장의 국가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부 힘을 움직일 사람 정부 발목 잡을 사람



발목 잡기에 헛힘 쓸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힘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여주·양평 주민을 위한 선택은 이모저모 살펴봐도 최재관뿐입니다.

**여주·양평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협력할 사람
엇박자 낼 사람**



여주도 양평도 시장 군수는 민주당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발목 잡혔던 일,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에서 대립할 사람이 아니라 협력해서 주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비교해보면
확실한 선택,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결과로
말했던 사람 최재관,
실력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정한 실력, 여주·양평에 필요합니다

친환경급식 물꼬를 뒀던 사람

2009년 여주에서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을 처음 시작한 주역도 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최재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한 친환경 학교급식은 불과 2년 뒤에는 전국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공익형직불금 이뤄낸 사람

쌀값을 지켜냈습니다. 공익형직불금 소농직불제를 만들어서 농사규모가 작은 농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군대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확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렸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이제 그 실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썼습니다.

청와대로 간 착한 농부

2018년 4월,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청와대에 들어와서 일해 볼 생각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적임자를 찾았고 결론은 최재관이었습니다.

최재관이 걸어온 길



- 서울대학교 졸업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
- 여주시 농민회 정책실장(전)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장(전)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전)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 분과위원(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당·정·청 아우르는 최강 핫라인, 여주·양평에 필요합니다



전국의 관심이 수도권 접전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수십년 교체없이 철옹성 같았던
여주양평 지역권력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최재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와대에서 쌓은
최재관의 인맥이 다가 아닙니다.
최재관 당선과 지역권력 교체는
여주·양평이 범정부적 관심 속에
새로운 레일 위를 달리게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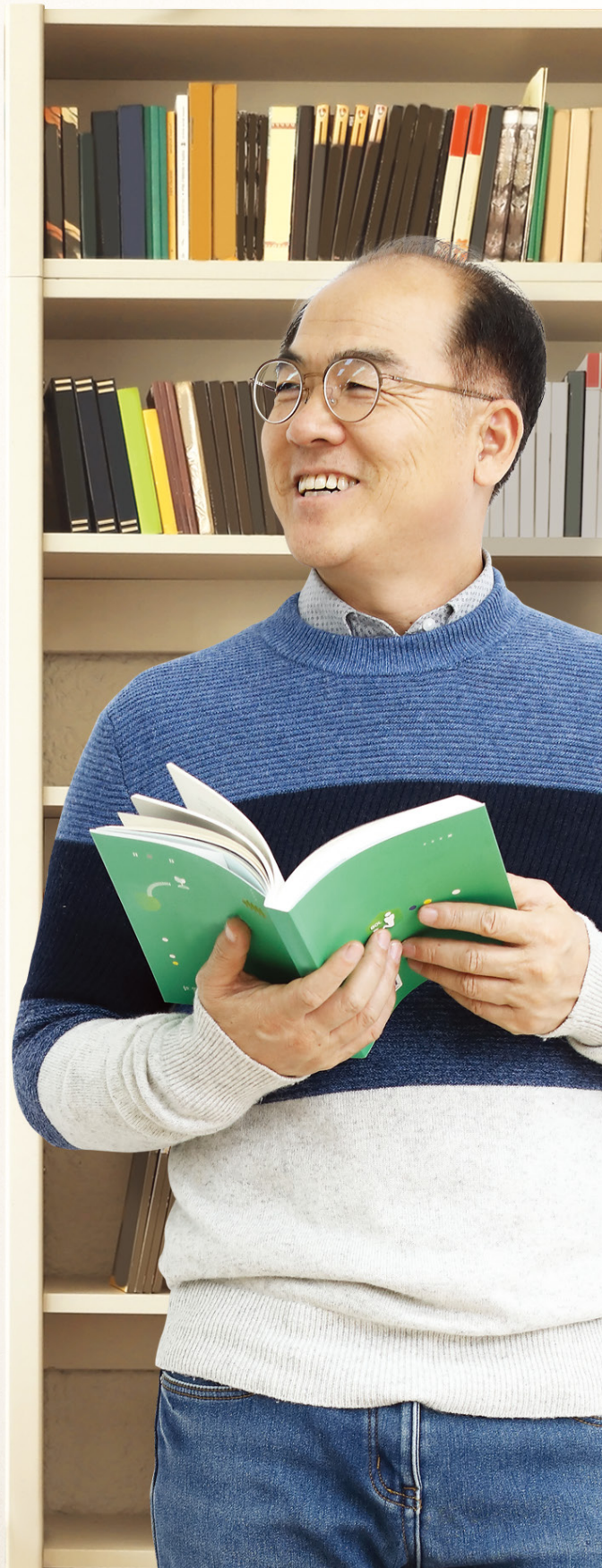


**일자리에
미쳤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1

청와대 비서관(전)
최재관





여주·양평의 강과 숲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굴뚝산업을 유치하고 신도시 건설 붐을 일으켰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친환경의 시대입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변변한 산업을 못하던 이곳이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독일의 산림산업일자리는 자동차산업 일자리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임도를 닦고 벌채와 간벌을 하는 일손, 목재를 가공하는 산업인력, 숲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전문인력, 산림치유, 양묘장, 임산물 가공 등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주·양평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40km의 절경이 펼쳐진 강변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임도 인프라가 가장 좋은 숲이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생태관광의 보고가 되고, 신산림산업의 중심이 됩니다. 여주·양평에서 친환경 산업의 국가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강과 숲에서

일자리가 더

강과 숲 일자리 매년 2천 개 창출

- 세미원 국가정원화와 강변숲, 공공승마장 추진
- 백년 숲 일자리 국가시범사업 유치

친환경 식품가공클러스터 유치 (여주 한살림 / 양평 두레생협)

- 수십만 회원을 가진 한살림과 두레생협의 식품가공 및 치유농업, 생태교육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유치해 청년일자리창출

지역경제가 더

여주 '물 정원 물 박물관(가칭)' 1천억원대 국비사업 유치

- 팔당상수원 맑은 물 관리의 랜드마크 시설로
- 정원투어리즘과 강변숲, 수상레저, 환경생태교육이 결합된 대규모 국책사업

양평 전국 최대규모 '생태전원주택 하우스링페어' 상설전시장 조성

- 전원주택 관련 전시, 상담, 계약,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설전시로 관광 및 관련 산업 육성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 스위스식 공익형 직불제 강화

- 농민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교육이 더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확대

석면 없는 교육환경

대안학교 지원

여주중심학교 농어촌특례 복원



일 자리를 만듭니다



문화가 더

대규모 '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건립

- 아트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활용도 높이고 수준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

여주 자전거 전국 도시재생 지원 공익형 스포츠몬스터 유치

안전이 더

온 마을이 돌보는 공공의료 강화

- 경기도립의료원(분원)유치
- 소아응급센터신설(국립교통재활병원 활용)

경기도립의료원 분원 유치

야간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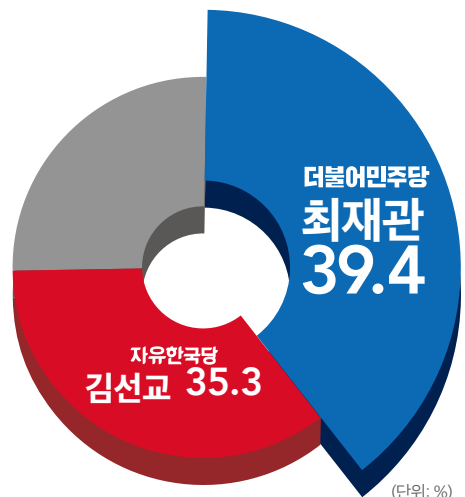
“사람 보고 뽑아야지, 이번에는 최재관이다”



한 번도 민주당 찍어본 적 없다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건네시던 말씀,
그래도 최재관이라 하십니다.
저는 당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안에서든 밖에서든 싸우지 말고
아우르고 보듬는 사람이 되어 달라"
자식들에게 평생 이르셨을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주·양평만 보고, 주민만 보고
일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4월15일,
믿을 수 있는 일꾼
최재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
됐습니다**



※ 위 조사는 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로 2020년 2월 1일, 2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